



미 증시, 유가 및 금리 상승에도 FOMC 대기하며 강보합

미국 증시 리뷰

18 일(월) 미국 증시는 중국 실물지표 호조로 인한 수요 개선 기대감에 유가 상승세 지속, 시장 금리 상승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 유입에도 FOMC 결과를 대기하며 소폭 상승 (다우 +0.02%, S&P500 +0.07%, 나스닥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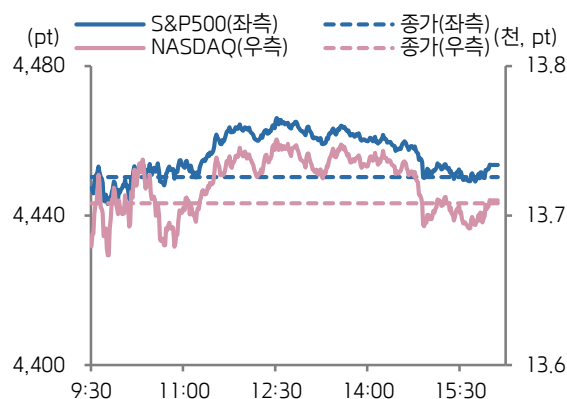
미국 9 월 NAHB 주택시장지수 45(예상 50, 전월 50)로 5 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그동안 주택시장의 부진에도 재고부족이 수요를 견인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5 주 연속 7%를 상회하는 등 주택시장의 침체가 우려된 것에 기인. 집계측은 "장기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주택 구매를 연기하는 구매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정서와 소비자 수요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고 평가.

ECB 위원 클라라 라포소는 유럽 경제의 둔화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2% 목표로 복귀할 수 있다고 전망. 근원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내려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제가 조금 더 둔화되면 아마도 우리는 일부 예측보다 더 빨리 거기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가능하다"고 언급. 경기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긴장되고 있으며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침체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외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표명.

중국 정부는 세액공제를 조정 공고를 발표하며 집적회로(IC), 공작기계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의 120% 세액공제 조치를 5 년간 확대하기로 발표. 이번 안은 중국이 강조해온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실상의 법인세 감면 조치로 해석.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경쟁 속에 IC 칩을 비롯한 첨단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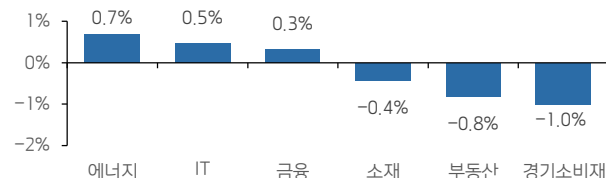
에너지(+0.7%), IT(+0.5%), 금융(+0.3%) 업종은 강세, 경기소비재(-1%), 부동산(-0.8%), 소재(-0.4%) 업종은 약세. 포드(-2.14%), GM(-1.80%), 스텔란티스(-1.61%)는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예고한 대로 현지시간 15일부터 3 개 자동차 기업 동반 파업을 시작한 이후 일부 생산라인이 중단된 영향으로 약세. 애플(1.69%)은 아이폰 15 선주문이 호조를 보이고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리드 타임이 평균 5~6 주로 지난 7 년간 출시된 모델 중 가장 길게 나타나는 등 우려 대비 선방했다는 평가 제기되며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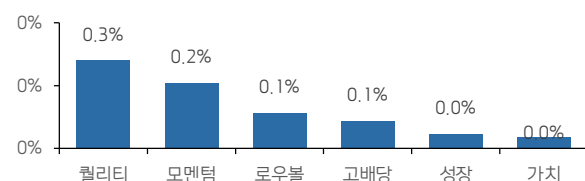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74.72	-1.02%	USD/KRW	1,324.38	-0.14%
코스피 200	340.67	-1.25%	달러 지수	105.08	-0.23%
코스닥	891.29	-0.86%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387.29	-0.79%	USD/CNH	7.29	+0.02%
S&P500	4,453.53	+0.07%	USD/JPY	147.58	-0.02%
NASDAQ	13,710.24	+0.01%	채권시장		
다우	34,624.30	+0.02%	국고채 3년	3.894	+4.7bp
VIX	14.00	+1.52%	국고채 10년	3.975	+4.8bp
러셀 2000	1,834.30	-0.69%	미국 국채 2년	5.054	+2.1bp
필라. 반도체	3,492.47	+0.46%	미국 국채 10년	4.303	-3bp
다우 운송	15,253.28	-0.56%	미국 국채 30년	4.384	-3.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45.88	-1.14%	WTI	91.48	+0.78%
MSCI 전세계 지수	679.70	-0.24%	브렌트유	94.43	+0.53%
MSCI DM 지수	2,956.14	-0.16%	금	1953.4	+0.37%
MSCI EM 지수	976.17	-0.9%	은	23.23	+0.46%
MSCI 한국 ETF	63.25	+0.21%	구리	374.15	-0.5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1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1.8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9 월 FOMC 경계심리 장중 심화 가능성 2. 9 월 FOMC 이후 대기하고 있는 변수인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 뉴스플로우 3. 애플 주가 반등으로 인한 국내 밸류체인주들의 주가 및 수급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초대형 이벤트인 9 월 FOMC 를 앞두고 9 월과 11 월 금리 동결로 컨센서스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 9 월 12 일 BofA 에서 공개한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 상으로도 응답자(7 월 9% → 8 월 47% → 9 월 60%)의 60%가 연준의 긴축이 7 월부로 종료됐다는 데에 베팅하고 있음. 하지만 미 10 년물 금리가 전고점(4.34%)을 상향돌파했다가 재차 4.30%선까지 내려오는 등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데 확인할 수 있듯이, 9 월 FOMC 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쉽게 완화되지 못하는 상황.

이처럼 현재 시장 불확실성의 대부분을 연준 긴축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가운데 미 정치권의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새로운 잠복 변수로 대기 중에 있음. 이는 미국의 2024 년 회계연도가 오는 10 월 1 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현재 12 개의 세출 법안 중 1 개 만 하원을 통과했고 국방 등 나머지 안건들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하원 구도는 공화당 222 석 vs 민주당 213 석).

공화당 극우파들은 세출을 2022 년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온건파들은 2023 년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공화당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발생 중. 매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은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30 일 내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합의 전까지 국방, 교통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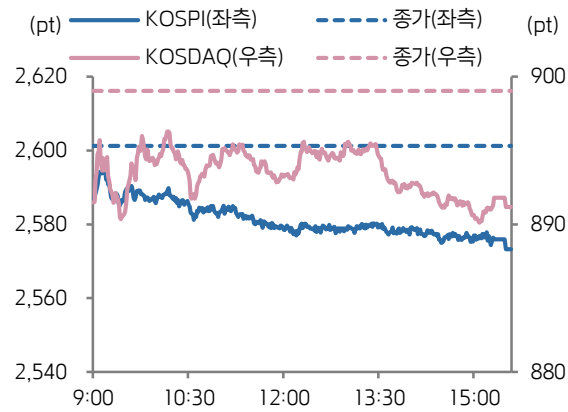
이는 증시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으나, 과거의 사례들은 셧다운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음을 시사. 일례로 1970 년 이후 미국에서는 20 차례 셧다운이 일어났으며, 평균 셧다운 기간은 8 일(최장 34 일, 최소 1 일), 셧다운 기간 중 S&P500 의 평균 등락률은 +0.1%, 코스피의 평균 등락률은 +0.5%를 기록. 최근의 셧다운이자 역사상 최장기간 사례였던 2018 년 12 월 21 일~2019 년 1 월 25 일(총 34 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 문제) 기간 중에도 S&P500 은 +9.3%, 코스피는 +5.6%를 기록하기도 했음. 당시 주식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을 딛고, 새해 효과, 실적 및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던 것으로 보임.

이전 셧다운 사례들마다 펀더멘털이나 매크로 측면에서 맥락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번에 예산안 협상 실패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되더라도, 과거의 학습효과로 인해 증시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가할 것으로 예상. 물론 지금은 연준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만큼, (그 확률은 높지 않으나) 셧다운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 물가 등 정부가 산출하는 주요 경제지표들의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연준이나 시장참여자들 모두 추후 통화정책 경로를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주가, 달러, 금리 등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에 있음에 유의(ISM 제조업 PMI 와 같은 민간 집계 데이터들은 그대로 발표될 예정).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나스닥 급락, TSMC 발 반도체주 투자심리 약화, 9 월 FOMC 경계심리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하락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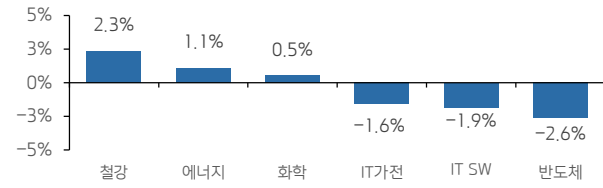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0.5%) 반등, 달러화 강세 및 시장금리 급등세 진정 등 미국발 재료에 힘입어 전일 낙폭이 컸던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장중 반등에 나설 전망. 다만, 9 월 FOMC 경계심리, 국제 유가 강세로 인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부담요인도 공존하고 있기에, 전반적인 지수 반등 탄력은 제한적일 것이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 성격이 짙을 것으로 예상. 업종 관점에서는 최근 중국발 악재로 연이은 주가 조정을 받았던 애플(+1.7%)이 사전주문이 호조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 관련 밸류체인주들의 상대적 반등 탄력이 강해질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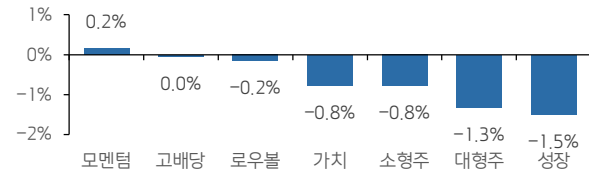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